

## KOSTA World, 9월 18-20일 얼바인 온누리교회서 개최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소명’을 묻다

2025 코스타 월드 어바인, 강준민 목사, 하준파파

박위 & 송지은, 아이자야 씽스티원 등 참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 ‘코스타 월드’(KOSTA World)가 오는 9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사흘간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집회는 “Calling: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출 3:5)라는 주제로,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돋을 것을 목표로 한다.

저녁 집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오픈 집회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0일(토) 오전과 오후에는 대학,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등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9월 18일(목) 저녁집회(7:00-10:00)는 황태환 대표, 이서진 목사, 박위 & 송지은, 아이자야 씽스티원 등 참여

사가 이끌며, 19일(금) 저녁집회(7:00-10:00)는 박위& 송지은, 강준민 목사가 이끈다.

9월 20일(토)은 일일수련회로 진행되며, 최성민 목사가 오전 집회를 인도하며, 토크쇼, 선택 특강, 연예 특강, 소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토요일 저녁 집회(7:00-10:00)는 ‘아이자야 61’ 조성민 간사가 친양을 인도하고 임은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번 집회에는 강준민 목사(새생명전교회), 임은미 선교사(케나선교사), 이서진 목사(온누리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최성민 목사(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본부장), 황태환 대표(하준파파), 송지은 & 박



디아스포라 청년을 위한 코스타 집회가 “Calling”이라는 주제로 9월 20(토)까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다. © kosta

위, 조성민 간사(아이자야 61) 등 다양한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청년부 찬양팀, 베델교회 청년부 찬양팀, 남가주 사랑의 교회 찬양팀이 찬양집회를 섬긴다. 주최측은, “이번 코스타를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붙잡는 영적 전환

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1980년대 미국 유학생들의 신앙운동으로 시작된 코스타(Korean Diaspora For the Kingdom of God)는 교단, 교파, 단체의 벽을 넘어 현재 1.5세와 2세들, 이민자들과 목회자 및 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연합사역으로, 현재 26개국에

서 약 2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주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등록: 개인 \$30 / 단체 \$20(1인)

문의: 949-735-7020

kosta@irvineonnuri.org

신청: kosta2025@kingdompla.net

## 美 찰리 커크 조문객들 장사진… “진리 위해 싸운 증인”

영적전쟁에서 고인의 공로 기려, 장례식은 9월 21일 애리조나

미국 보수 기독교 운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31)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수천 명의 조문객이 위싱턴 D.C. 케네디센터를 가득 메웠다.

지난 14일 밤 열린 추모집회에는 백악관 각료와 의회 의원들, 보수 기독교 지도자와 교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신앙과 삶을 기렸다.

이날 집회는 단순한 애도를 넘어 정치적·종교적 메시지가 결합된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영적 전쟁”으로 규정했다. 한 연사는 “오늘날 미국은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 해져 있다”며, 커크가 걸어온 길을 신앙의 투쟁으로 강조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크를 ‘영적 동료’이자 ‘영적 형제’라고 불렀다. 그는 “커크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담론 옹호에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한 커크가 자신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운동과 트럼프 진영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정치적 통합의 실무적 설계자로서 영향력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언자는 “슬픔에만 머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희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커크가 남긴 용기와 열정을 이어받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커크의 장례식은 오는 9월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렸다. © Kennedy Center

21일 애리조나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오전 8시에 문을 열고 11시부터 공식 예

보수 진영의 청년운동가였던 커크는 여러 대학에서 “내가 틀렸음을 증명해봐”(Prove Me Wrong)라는 문구를 달고, 청년들과 기독교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MARS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s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 그룹  
마동환 변호사 그룹 213.820.3704  
MARC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전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2025  
브릿끼워십  
찬양집회

# Your Kingdom Come

##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2025.10.05 (주일) 9:30 & 11:15 AM |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 818.832.6628 | churcheveryday.org

예배 인도자 | 정데이빗 서우람 해리슨 고 지현준  
싱어 | 지주영 서예랑 김아경 김지연 김윤경 정서현 이승연 송성호 성미경 자넷고 장민아 서승덕  
세션 | 김주디 FIRST 건반 | 김예림 SECOND 건반 | 우조앤 ACOUSTIC 기타 | 정준희 ELECTRIC 기타 | 민경일 BASS 기타 | 정조셉 DRUM



## 세계등대교회 창립 42주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길”

세계등대교회(김도일 목사)가 지난 14일 오후 3시, 창립 42주년 기념 임직식 및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간스윌연합교회 담임목사 이희철이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성도들도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를 받은 자이며, 교회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한 목회자와 장로, 권사 등 교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할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며, “목회는 인간관계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것처럼, 원로와 후임자, 시무 장로와 원로 장로가 성령 안에서 은혜롭게 관계를



글렌데일에 위치한 세계등대교회가 지난 14일(주일) 창립 4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 lighthousemissionchurch

### 42년의 역사, 어려움과 환난 극복하며 체력과 믿음을 쌓아온 것... 세상에 빛 비추는 교회 되길

맺어가야 한다”며 “인간적인 상처나 모난 부분을 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관계가 천국처럼 변화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세계등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한다”며 설교를 마쳤다.

권면을 한 이창남 목사(주님의 손길교회)는 데살로니카전서 5장 16~18절 말씀을 인용해 “항상 기

빼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세 가지 권면을 했다. 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지 않는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며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리더의 자리에 서면 오해와 혐담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뻐해야 한다. 기쁨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임직의 자리는 왕관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권면했다.

이어 축사를 한 장철 목사(꿈을 이루는교회)는 “교회를 세운 지 4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으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른 것은 곧 체력과 믿음을 쌓은 것과 같다”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이롭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분은 권위를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며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섬김과 순종으로 사셨다”며 “예수님만 맑아 주신 말씀만 따라 섬기기 바란다. 생명초자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언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8절 말씀을 전하며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후,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는 날까지 초심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글렌데일에 위치한 세계등대교회는 기독교선교연맹(C&MA)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목회에 앞서 한국과 미국 방송국에서 TV 프로듀서로 활동한 김도일 목사는 미디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나성영락교회 가을 특별 새벽집회, 주님의숲교회 류연주 목사

“명예는 원하면서도 섬김이 없는 지도자, 외형적인 부흥과 목회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자였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동행하는 교회들과 함께 ‘2025 가을 특별 새벽집회’를 “The Church as Mission(하나님의 사명, 교회)”라는 주제로 9월 20일(토)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토) 오전 6시, 주님의숲교회(Lord's Forest Community Church) 담임 류연주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우리 교회”(예배소서 1장 23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류 목사는 초기 목회 과정에서 겪었던 큰 좌절을 고백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예배당을 비워야 했고, 성도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깊은 무기력에 빠졌던 시간을 나누었다.

그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어 명성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다”며, 기도와 금식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고백했다. 그때 목상하게 된 말씀은 에스겔 34장 2~6절이었다.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서 류 목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목사로 세우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양떼를 향한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나?”

그는 다시 조심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잠자리 따르겠다고 서원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목회적인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은 ‘찾아가는 목회’로 이어졌다. 류 목사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자”며 성도와 이웃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자녀들을 통해 부모에게 다가가고, 가정



2025 가을 특별새벽집회가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류연주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으로 초대해 차와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했다. 그 안에서 성경공부와 가정 사역(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으로 이어지며 신앙적 성숙과 가정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류 목사는 또한 “명예를 원하면서도 섬김이 없는 지도자, 외형적인 부흥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목회자였음을 깨닫고 “하나씩 내려놓

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숫자, 교회 크기를 목표로 삼던 시선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로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류 목사는 “주님의숲교회가 현대인들의 삶 속에 숲이 되어, 사람들이 들어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

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12월까지(매주 토) 미자립교회 젊은 목회자들을 초청해 말씀을 나누는 특별집회로 준비했다. 강사 신청 마감은 9월 31일까지이다.

조셉 리 기자

강사 신청: <https://gemini.google.com/share/27b20c2e9b52>

YouTube

CDTV

TV기독일보 주간뉴스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품성한 혜택 가을스페셜**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 Frank Kim 323.623.0682 | Sean Kim 213.605.2886 | Jae Lee 714.319.4611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1-888-644-7114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 보수 청년운동가의 죽음 앞에서 교회가 던진 질문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시대가 온다’(마 5:10-12)

지난 10일(수) 오후 12시 20분쯤 유타밸리대학교 야외 행사장에서 공개 토론을 진행 중이던 보수 청년 운동가 칼리 커크가 총상을 입고 서른한 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 논란을 빚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앱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하워드·존 웨슬리 목사는 “커크는 ‘자랑스러운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몇몇 한인 목회자들은 그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 그가 기독교 세계관과 복음주의적 가치를 주장했던 점과 그의 살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은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텍사스 캐롤튼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는 지난 12일(금)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시대가 온다’(마 5:10-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 사건을 전면에 다뤘다.

그는 커크를,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적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으로 평가하며, 그의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에서, 커크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은 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죽음을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는 지난 12일(금)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시대가 온다’(마 5:10-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칼리 커크 총격 사건을 전면에 다뤘다.

택한 적이 있었나요? 잔혹한 죽음을요? 단지 거짓말 때문이에요?” 낙태찬성론자의 의견을 반박하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어퍼메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허점을 지적한다.

한 예로, 영상에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등장한다. 커크는, “그렇다면, 태아는 무슨 종(species)인가?”, “인간”, “그럼 왜 살인이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왜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 그러자 여성은, “태아는 아직 여성의 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커크는 이에 다음과 같이 받아친다. “심장박동기를 달면 의존적인 것이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 아기들은 모두 다 의존적이야. 의존한다고 해서 그 존재의 도덕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왜 태아 샤워가 아니라,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가?

이어서 이은상 목사는,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임태되게 하시는 순간부터 생명인 줄 믿는다. 한 여학생이 태아를 기생충에 비유 한다. 그러자 그가 ‘베이비 샤워야 아니면 테아(fetus) 샤워냐’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아이가 뱃속에 있지만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이를 존중하며 생명으로 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외쳤던 삶이다.”

그는 정치적 성향, 생각,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교회, 교단, 같은 크리스천 안에서도 한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분열과 증오가 발생한다면, 정치적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어떤 조직과 기관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되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되라 하셨지, 어느 정치인의 이념으로 하나님되라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치 이념과 조직과 기관과 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느새 그 정치인들과 그런 마음을 통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하나님되어 있으며, 무엇에 분개하는가? 무엇에 마음이 들끓는가? 무엇에 마음이 동요되는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동요되는가?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그것 때문에 쇠사슬이 뚫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사자 우리의 밥이 됐고 검투사들의 놀이감이 됐다.”

그는 칼리 커크의 영상에서,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아들과 아버지가 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랑한다는 건 내 성향과 내 생각과 내 인연과 내 가치관이 맞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육신이 필요하다. 성육신은 유연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신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어요’, ‘검으로 살고 검으로 죽었어요’, ‘그가 스스로 주장하던 것이라 생각해요’, ‘그의 죽음은 좋은 일이었어요.’ 등의 그들의 답변을 보여주며, 그는,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들, 유년부와 영아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며 “3,500개 이민 교회를 밟았기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ANC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는, 14일 주일 3부예배 때, 그의 죽음을 언급하며 기도했다.

“칼리 커크라는 크리스천 보수 운동가가 암살됐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표현의 자유이다. 폭력 없이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 미국이다.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디 한기자

## 라운드락장로교회, 현당예배 드리며 새로운 도약

1995년 12월 8일, 어른 4명과 아이 5명으로 출발한 라운드락장로교회가 2025년 2월 26일 현당예배를 드리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교회는 1999년 9월 5.5에이커의 부지를 구입해 첫 성전을 건축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오다, 2024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100여 만 달러 예산의 공사를 통해 성전을 증축 및

신축했다. 모든 건축비를 완납하고 드린 이번 현당예배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선교 비전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광석 목사는 세계예수교장로회(WPC) 제42대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부친 고(故) 김일국 목사는 캘리포니아 엘시노와 텍사스 킬린에서 혈돈산 기도원을 운영했으며 한국에서 연합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김 목사의 모친 허봉랑 선교사는 88세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사역하



고 있다. 65년간 1만 5천여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했으며, 유튜브를 통

해서도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김광석 목사의 영향으로 교회 역시 설립 당시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라운드락장로교회는 22개국의 선교사들

을 후원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현당예배는 단순한 건물 완공의 의미를 넘어, 더 넓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김광석 목사는 “앞으로도 복음과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교회 주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홈페이지: www.rrkpc.net

E-MAIL: rrkpc@hotmail.com

###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꼬딱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SCAN ME

## \*전기세 50~90% 절감\*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료실에  
온기를  
채우는  
당신을  
모십니다

## PRIMARY CARE PHYSICIAN 모집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대우 보장

근무 지역

LA / ORANGE COUNTY

CONTACT

☎ (760) 927-0927

✉ TONY@POPMSO.COM

🌐 WWW.CENTERIPA.COM

인터뷰 희망 시 연락 바랍니다



##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실상 ‘사형 선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변경지역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의정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중국 내 탈북민들은 ‘3불(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문제에 해당해 언제든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발된 탈북민은 구금된 후 강제 북송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특히 탈북여성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이나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훈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5일 진행되고 있다. © 국민연합

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의 호구 등록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또한 탈북민을 지원하는 자국민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탈북민의 탈북 행위나 중국 내 체류를 돋는 중국인과 조직이 위법 행위임을 명시하여 자국민도 처벌을 한다. 이러한 조치는 탈북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은신처와 지원망을 위축시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이 북한이탈주

민을 ‘불법 월경자’로 분류하는 것은 탈북민에게 법적 보호를 박탈하고, 그들을 극단적인 취약 상태에 놓아놓는 의도적인 정책”이라며 “법적 지위의 부재는 이들이 인신매매, 강제 결혼, 노동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에 노출되도록 만들며, 피해를 당해도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벌과 인권 유린에 직면한다”며 “북송된

이들은 고문, 폭행, 굶주림, 성폭행, 강제노동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특히 중국인 남편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북송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반역자’로 간주되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은 탈북 행위를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한다”며 “김정일의 교시판에는 ‘도주한 놈을

무조건 잡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탈북민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이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극단적인 인권 유린의 실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강제북송 행위는 단순한 송환을 넘어 사실상 ‘사형 선고’ 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삶으로의 추방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북한 정권이 공포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반인도적 범죄에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시리아 종교 소수자 학살 지속… 미국에 적극 대응 촉구

시리아 내 기독교인, 알라위파, 드루즈 등 종교 소수자들이 급진적 지하디스트와 극단주의 세력의 잔혹한 공격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교 자유 옹호자들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알리위파미국협회(AAUS) 회장 모르하프 이브라힘 박사는 최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의도적인 테러 캠페인”이라며 “시리아의 종교 소수자들이 존재 자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CP에 따르면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기독교인과 알리위파, 드루즈 공동체는 외국인 지하디스트와 아사드 충성 세력, 임시 정부를 장악한 민병대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특히 알카에다와 이슬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 사건 후 시위하는 시리아 기독교인들. (기사와 관련 없음) © citynews 보도영상 캡처

람국가(IS) 출신으로 구성된 연합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권력을 잡으면서 종교 소수자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브라힘 회장은 올해 3월 지중해 연안 알라위파 마을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을 언급하며 “1,500명에 달하는 주민이 잔혹하게 살해됐다.

심지어 희생자의 심장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과 소녀들이 남자와 성노예로 팔리거나 강제 결혼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22일에는 다마스쿠스의 마르

엘리야스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

생해 20여 명이 사망했다. 폭탄 조끼를 착용한 범인은 주일 예배 중 종격을 가한 뒤 자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펜스 오브 크리스천스’(IDC) 리처드 가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매번 자살 폭탄, 교회 파괴, 공동체 탈출이 이어지면서 시리아는 2,000년 역사의 신앙과 문화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가속화된 종교·문화적 말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과 알라위파, 드루즈가 시리아 사회에서 온건한 균형자 역할을 해왔다며 “이들의 소멸은 급진주의 확산과 중동 평화의 근본적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의 소멸은 동서 문명을 잇는 중요한 다리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내전 발발 이전 시리아 기독교인은 약 200만 명(전체 인구의 10%) 이었으나, 현재는 30만 명 이하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브라힘 회장과 가잘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자 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이브라힘은 “알라위파, 기독교인, 드루즈, 쿠르드 등 모든 소수자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중동의 지속적 평화 기반”이라며 분권형 통치가 안정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잘 사무총장은 소수자들의 예배·공적 생활 참여 보장, 헌법적 권리 보호, 군 개혁을 통한 민병대와 외국인 전투원 축출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미국은 외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반드시 소수자 보호와 종교 자유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단순한 규탄을 넘어 적극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시리아의 종교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인류 문명 전체의 유산을 보존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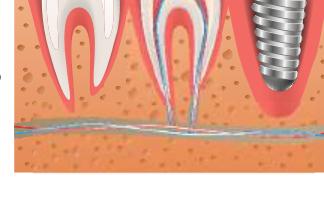
이미경 기자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터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메디칼그룹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 김진홍 목사 “손현보 구속, 유신·신군부 시절에도 없던 폭거”

기독교 지도자들 겨냥한 수사 심각성 비판… “정권의 자충수”

두레수도원 원장인 김진홍 목사가 최근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지난 세월에 악명 높았던 유신 독재 시절이나 신군부의 폭압 정치 하에서도 이 정도의 폭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최근 본지와의 유튜브 라이브 대담을 통해, 그리고 15일 두레마을 회원들에게 보내는 아침 묵상 글을 통해 재차 밝혔다.

그는 “내가 볼 때는 손현보 목사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시국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되 온건하게 대처한 분”이라며 “그런 그를 〈도주 우려〉란 이유로 구속시킨 점에 대하여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보수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좌파는 자충수(自充手)로 망한다〉, 나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 당 안에서 10여 명의 역적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글자 그대로 우파가 분열로 망한 경우다. 그 덕에



▲최근 유튜브 대담을 갖고 손현보 목사 구속과 현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힌 김진홍 목사.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좌파 정권인 이재명 쪽이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별일도 아닌 일로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일 이야 어쨌든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인 김장환 목사를 들볶는 일이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일 등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기에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는 것

이라 여긴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자충수 두기를 계속하여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궁금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목사의 15일 아침묵상 글 전문, 그리고 본지와 김진홍 목사의 유튜브 라이브 대담 영상.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에 두레마을에서 주간지인 크리스천투데이지의 류재광 대표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담의 주제는 요즘의

어수선한 시국을 주제로 삼고 한 시간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사건이 당연히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손현보 목사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시국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되 온건하게 대처한 분입니다.

그런 그를 이번에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를 〈도주 우려〉란 이유로 구속시킨 점에 대하여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작금에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외에도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조사에 출두하라고 거듭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 사무실을 수색하고 이영훈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간 처사에 대하여 나는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에 악명 높았던 유신 독재 시절이나 신군부의 폭압 정치 하에서도 이 정도의 폭거는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하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악수를 둘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좌파는 자충수(自充手)로 망한다.〉

나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 당 안에서 10여 명의 역적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파가 분열로 망한 경우입니다. 그 덕에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좌파 정권인 이재명 쪽이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일이야 어떻든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인 김장환 목사를 들볶는 일이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일 등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기에 이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자충수 두기를 계속하여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궁금하여집니다.

송경호 기자

## AI로 되살아난 아펜젤러 선교사 “제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김정석 감독 회장) 도서출판kmc가 16일 오후 CTS 아트홀에서 개신교 140주년 기념 청년비전 토크콘서트 ‘고잉업(Going Up): AI아펜젤러와 함께 감리교회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특히 AI 기술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복원해 패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오프닝, ‘복음과 함께 성장한 한국교회’ 주제강의, 패널 토크, AI 아펜젤러와의 만남, AI 아펜젤러와 김정석 감독회장 대담, 마무리 토크 및 클로징 순으로 진행됐다.

서명석 교수(협성대학교)가 ‘복음과 함께 성장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서 교수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창기 여정이다. 1883년 보빙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열차 안에서 가우처 박사를 만났던 사건은 곁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우연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된 연결이었다. 그 만남을

통해 가우처의 지원과 요청이 맥을 레이로 이어졌고, 결국 고종에게 의료와 교육 활동을 허용받는 길이 열렸다. 이어서 감신경변과 민영의 부상 사건이 터졌을 때 알렌이 서양 의술로 그를 치료하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제중원 설립으로 복음이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는 “1885년 제물포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 상륙했을 때, 사람들은 누가 먼저냐를 따지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같이 왔다’는 점이다. 아펜젤러는 영어 교실로 시작해 배재학당을 세우고, 전도와 출판, 교회 개척, 민족의식 고취까지 여러 방면에서 사역했다. 비록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학교와 교회, 문서 사역의 발자취는 한국 근대화와 신앙 공동체에 큰 기초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또 윌리엄 스크랜턴은 가난한 이들, 전염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치료했다.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돌



개신교 140주년 기념 청년비전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봄과 치료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은 여성의 거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 하던 시대에 여학교를 세웠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여성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며 결국 이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감독회장 대담에서 AI 기술로 구현된 아펜젤러 선교사는 “제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사람들은 저와 동료 선교사들을 ‘서양 도깨비’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 길에서 돌을 맞을 뻔한 일도 있었고, 마음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 저는 조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돌보았다. 그 과정에서 제 동료들은 가족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 하면서 울고 기도하며 곁을 지켰다. 그렇게 하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 열리고, 사랑으로 열리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조선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낮선 음식도 함께 먹었고, 외국인답게 가마를 타는 대신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며 대화했다. 생활에서도 사역에서도 조금 더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 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l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 콩고 동부 기독교인 100명 이상 학살당해... 이슬람 반군 소행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이슬람 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노스키부(North Kivu)주의 은토요와 포로두 마을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이슬람계 반군 조직 연합민주군(이하 ADF)으로,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은토요 마을에서는 최소 70명이 한꺼번에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도끼·칼·총기 등으로 공격당했으며, 일부는 한밤중 장례식 도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가옥과 차량, 오토바이 등이 불타고 파괴됐으며, 주민 상당수가 납치되는 등 피해는 더욱 확산됐다.

망구레지파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음불라 사마키 목사에 따르면, 은토요

에서만 최소 70명이 학살당했으며, 범행 무기는 주로 마체테 혹은 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마키 목사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집, 오토바이, 차량을 불태우고, 2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수십 명을 납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 대한 사명을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망구레지파 교구 사제 아베 팔루쿠 은잘라밍기 목사는 “폭력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우리가 다 셀 수는 없지만, 대략 70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를 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학살 사건은 최근 몇 주간 반복돼 온 ADF의 연쇄 공격 중 가장 참혹한 사례로 꼽히며, 국제 인권단체 오픈도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콩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민간인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미쉘 기자

## 하나님의성회, 72년 만에 최대 규모 선교 계획 발표



▲하나님의성회 존 이스터 전무이사. ©하나님의성회

하나님의성회 세계선교회(The Assemblies of God World Missions, 이하 AGWM)는 2025년 종회를 통해 지난 72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선교 계획을 발표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전 세계 미참여 및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동원으로, 현재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대상으로 한다.

AGWM의 존 이스터(John Easter) 전무이사는 “이 이니셔티브는 우리 세대가 목격할 가장 큰 영적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며 “단순한 선교 확대가 아니라, 복음 접근의 격차를 해소하고 가장 영적으로 황폐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AGWM에 따르면, 전 세계 82억 인구 중 약 42%가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2억 2천만 명 이상은 교회, 선교사, 신자조차 없는 2,085개의 미전도종족에 속해 있다. 유럽 내에서도 5억 명 이상이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터는 2023년 리더십을 맡은 이

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왔으며, 2024년 캐나 나이로비에서 열린 선교 지도자 회의에서 “42%를 41%, 40%, 39%로 줄여나가자”는 도전적 메시지를 던졌다.

AGWM은 현재 2,569명의 선교 인력을 2033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AGWM 사역자는 복음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 방향을 재조정하며, 각국 교회와 협력해 교회 개척, 소그룹 형성, 개인 전도를 통해 미전도 인구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AGWM 차세대 전략가 제이콥 제스터(Jacob Jester)는 “역사상 가장 큰 세대인 Z세대가 이 사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교회들이 아마존의 부족부터 아랍권 무슬림 가정, 아시아의 불교 공동체 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GWM 동원 및 개발 책임자인 사라 점프(Sarah Jump)는 “이번 종회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희망의 순간이었다”며 “우리 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성식 담임목사  
어버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2부예배 오후 2:00 월~금 오후 7:30  
청년초성경부 주일 오후 3:00 ~토 오후 8:00

#### LA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면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기섭 담임목사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ng.org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후 6:00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꾸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장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써니김 담임목사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써니김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세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전세벽예배 오전 6:30

####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엘리야 김 담임목사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박은성 담임목사  
금요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예배 오후 1:30

####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박은성 담임목사

김성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화~토)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교회 세우 받아 함께 달리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김지훈 담임목사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강지원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이수호 담임목사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 올림픽장로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서사라 담임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 방송설교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라디오 서울 AM 1560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원인(OneIn)

####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서사라 담임목사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티드 오후 5:00

####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8:00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종교동포 주일 예배  
EM예배: 오후 11:00 종교동포 주일 예배  
토요예배: 오후 11:00 종교동포 주일 예배

####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김창섭 담임목사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한길교회  
토요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한길교회

한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국윤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교育부 오전 11:30

####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국윤권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EM 대(창) 오후 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3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중고등부 오후 10:30

#### 한마음제자교회

신자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 대(창) 오후 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3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중고등부 오후 10:30

#### 기독일보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후 6:00(월~토)  
중/고예배 오후 11:00

## 美 브루클린 태버내클 담임목사 “찰리 커크 암살은 ‘혐오행위’”



짐 심발라 목사. ©YouTube/Brooklyn Tabernacle

미국 뉴욕 브루클린 태버내클의 짐 심발라(Jim Cymbala) 담임 목사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설교에서 보수 기독교 활동가 찰리 커크(31)의 암살을 ‘혐오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현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심발라 목사는 “만약 찰리 커크의 죽음을 정당화하거나 만족을 느꼈다면, 당신은 매우 병든 상태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며 “기독교인은 누구의 죽음에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브루클린 도심에 위치한 브루클린 태버내클은 매주 약 1만 명의 신자가 모이는 대인종 교회다.

커크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 ‘터닝포 인트 USA’와 신앙 네트워크 ‘TPUSA Faith’의 창립자로, 지난 10일 유타주 오렌지의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연설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아 목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 논란이 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역사적 대형교회 앨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하워드-존 웨슬리(Howard-John Wesley) 목사는 같은 날 “커크

이미경 기자

## 해리포터 저자 J.K. 롤링 “내 안에 하나님 향한 빈 공간 있지만...”



작가 J. K. 롤링 ©TODAY 보도화면 캡처

해리포터 저자 J.K.롤링은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 이용자가 “변화된 신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신앙적 고민과 정치·사회적 입장 변화를 함께 언급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롤링(60)은 “심대 중반 이후 종교적 신앙을 두고 계속 씨름해왔다”며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이 문제는 무덤까지 가져갈 것 같다”며 신앙 문제를 끝내 확신하지 못할 가능성은 시사했다.

그녀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평생 미해결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롤링은 성공회 전통 속에서 자랐으며 현재 스코틀랜드 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고민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신념의 변화도 언급했다.

롤링은 “과거에는 일방적 핵무기 해체를 지지했고, 대마초가 무해하다고 믿었으며, 암락사도 찬성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가까운 이가 대마초로 인해 정신 건강이 무너지

는 것을 목격했고, 의사인 남편(닐 머리)

을 통해 암락사가 병약자와 취약계층에게 강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남녀 차이가 전적으로 사회화의 산물이라 믿었지만, 관련 연구를 읽고 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성별 정체성 논란에 대한 입장 변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롤링은 최근 몇 년간 성별 구분을 없애려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롤링은 2020년 ‘생리하는 사람들(peopple who menstruat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를 비판하며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익은 건가?”라며 풍자적인 단어를 나열해 성별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해 “만약 성별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동성애도 실재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현실이 지워진다”며 “나는 트랜스젠더들을 알고 사랑하지만, 성별 개념을 없애는 것은 여성의 삶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혐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후 6:00  
EM성인예배 오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찬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후 8:00  
EM 3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g.org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 2222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용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 1부예배 8:00am 주일학교/중고등부 오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5:30 (토요일) 오후 6:00

GRC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5:30 (토요일) 오후 6:00  
GRC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오렌지한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새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새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un@hanmail.net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방침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1부예배 오전 7:45 새벽예배 월(금) 오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월) 오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일) 새벽 6: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예수의 은혜로운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 교회 분쟁, 때로는 '사소한 이유' 가 갈등 불씨



©pixabay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샘 레이너 목사의 기고글을 '교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게재했다.

레이너 목사는 플로리다의 웨스트 브래드턴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쳐치 앤서스(Church Answers)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주요 내용이다.

교회 갈등은 교리·운영·지도력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소하고 엉뚱한 이유로 발생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의 수염 길이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거나, 부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지 묘지로 사용할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사례가 보고됐다. 찬양 인도자가 눈을 감고 노래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한 교회도 있었으며, 제초기를 어떤 모델로 구매할지를 두고 두 차례 회의를 연 교회도 있었다.

이 같은 갈등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배경에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다.

첫째,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카펫 색상을 두고 다투는 경우 실제로는 권력, 영향력, 또는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가'라는 감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작용한다. 교실 배치나 절기 행사, 장식과 같은 작은 전통도 교인들에게는 과거 세대와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며, 변화는 곧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진다.

셋째, 신뢰 부족이 작은 문제를 증폭시

킨다. 신뢰가 높은 교회에서는 사소한 의견 차이가 쉽게 봉합되지만, 불신이 자리 잡은 교회에서는 작은 결정도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해석된다.

넷째, '마지막 지푸라기' 현상도 있다. 장기간 쌓인 불만이 하찮은 문제에서 폭발하며, 실제로는 더 큰 문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이슈에 분노가 집중된다.

다섯째, 대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교인들이 가정, 직장, 건강 등 개인적 스트레스를 교회 문제에 투사하면서, 교회가 불만의 배출구가 되는 경우다.

여섯째, 교회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의 결합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회의 작은 변화가 곧 자신의 존재와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강한 저항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문제일수록 다루기 쉽기 때문에 갈등의 표면적 소재가 되기도 한다. 부서 명칭 변경이나 예산 세부 항목을 두고 다투는 것이, 관계 파괴나 뒷말과 같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것이 반복되며 신뢰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

교회의 건강성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겸손과 은혜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탄은 큰 이슈가 아니라, 방치된 작은 문제만으로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미경 기자

## 미 샌디에이고 카운티 목사 자택서 피살... 지역사회 충격



펠리페 아센시오 목사와 그의 가족. ©GoFundMe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라모나에서 한 목사가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용의자는 현재 구금 중이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라모나 에잇 스트리트에 위치한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 숨진 인물이 템플로 몬테 호렐(Templo Monte Horeb) 교회의 펠리페 아센시오 목사라고 확인했다.

현지 언론 KGTV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센시오 목사는 단순한 강단의 설교자를 넘어 신앙적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로 교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교인 미겔 에르난데스는 "믿기 힘든 일이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여전히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에

게 인사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친구 프란시스코 토마스는 "그는 제 인생이 힘들었을 때 집으로 맞아주었다"며 "좋은 친구이자 남편, 아버지, 그리고 최고의 목사였다"고 회상했다.

아센시오 목사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겼다. 지역 주민들은 유가족을 돋기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섰으며, 고펀드미(GoFundMe) 페이지가 개설돼 장례 및 범죄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모금 페이지 작성자는 "사랑하는 남편이 두 자녀의 아버지인 펠리페를 잃은 제 언니 아비가일을 대신해 도움을 요청한다"며 "갑작스러운 상실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작은 모임 후원이 가족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기도와 친절, 그리고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교회 분쟁, 때로는 '사소한 이유' 가 갈등 불씨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예배 오후 11:00 세번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10  
3부예배 오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번예배(화-금) 오후 6:00, (토) 오후 6:30

###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성진 담임목사

-부 07:30AM -1부 09:00AM  
-2부 09:15AM -2부 11:00AM  
-3부 11:00AM

###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부(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2:30  
유년부(K-2) 오전 10:30 학교교회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세번예배(화-토) 오전 6:00

###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천왕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세번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별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강문수 담임목사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 LA 북부 지역,拉斯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파회)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세번기도회(임금회세체)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금모요일금) 오후 6:00

###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30

www.icccla.org

###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예배 오후 11:00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후 10: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크리스천 비지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코프(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 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모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차바 오방탕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출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신대) 신춘식 교수(Ph.D.)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역사를 보는 두 렌즈 이론』이 9월 10일 출판사 CLC에서 출간됐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교사'라는 독창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학이라는 두 해석의 렌즈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분석했다.

총 536쪽 분량의 이 저작은 학문적 정밀함과 더불어 결건과 실천, 부흥과 목회와 선교에 대한 통찰을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신학'을 담고 있다. 저자는 8년간 인도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눈물과 기도를 기반으로, 에드워즈의 신학이 오늘날 선교 현장과 신학교육, 목회 사역 속에서도 생생히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단순히 신학자나 부흥운동가로만 한정하지 않고, 스톡브리지 인디언 선교와 『브레이너드의 일기』 편집·출판을 통해 국제 선교 운동을 촉진하고 선교 정보를 확산시킨 선교사적 리더로 재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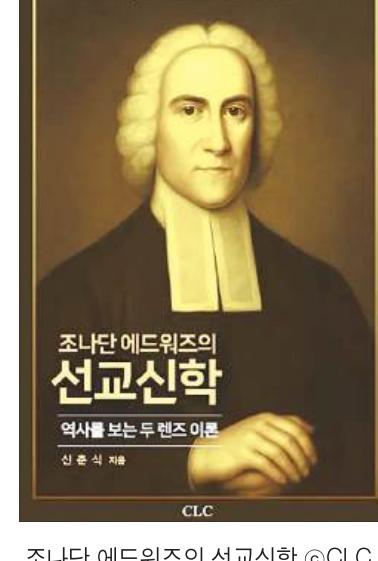
에드워즈는 약자의 대변자이자 교육자,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실천했으며, 선교 운동의 확산, 선교 정보의 보급, 국제적 기도 네트워크 구축, 구속사적 해석을 통한 선교 이해, 그리고 지상명령의 개념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저자는 에드워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모든 신자와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신앙과 선교의 유산을 보여주는 십자가적 희생과 순교적 삶의 모범으로 해석한다.

특히 저자는 '두 렌즈 이론(Two-Lens Theory)'을 제안하여,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선교 역사를 깊이 있게 성찰했다. 이번 출간에 대해 교계와 학계의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이 입을 모아 추천했다.

이승종 목사(KWMC 대표의장) "저자는 에드워즈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한 선교사적 리더로 조명하며, 그의 죽음을 십자가적 희생의 모범으로 제시했다. 획기적인 연구이다."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일깨우며, 선교적 영성과 디아스포라 현장의 생생함을 담은 이 책은 부흥과 선교를 갈망하는

A MISSIONAL LEGACY  
OF JONATHAN EDWARDS

신학대학원 원로교수) "신춘식 박사는 인도 선교 현장과 풀리 선교대학원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 사역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탁월하게 분석해냈다."

**철가방 소년에서 복음 전도자로**  
신춘식 교수는 목회자, 선교사, 학자라는 세 가지 소명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자이다.

그는 CGN TV에서 "철가방 소년에서 복음 전도자로"라는 이야기로 소개된 바 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어린 시절 지게를 지며 가족을 도왔고, 청계천에서 낮에는 철가방을, 밤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니며 배움의 길을 이어갔다. 중학교 졸업 후 1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중 결핵 임파선염으로 큰 고난을 겪었지만, 말씀을 불들며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강원도 양구에서 군종병으로 복무한 뒤 독학으로 교육부 영어영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신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갔다. 그는 종신대학교(B.A.), 종신대 신학대학원(M.Div.), 종신대 일반대학원(Th.M.)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토대를 쌓았고, 성경 암송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걸어다니는 성경관주'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났다.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교회 사역을 경험한 그는 2007년, 어린 세 자녀와 아내와 함께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 8년간 신학교 강의와 목회자 훈련, 현지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였다. Asia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New Life College, Bethel New Life College 등에서 교수로 섬기며 신학 교육과 현장 사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2015년 인도 정부의 추방 정책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옮긴 뒤, 풀리신학교에서 D.Min.(Global Mission)을, CPU에서 Ph.D.를 취득했다. 현재 저자는 한인 디아스포로교회를 섬기며 CPU 선교학과 교수이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서 CPU 박사원에서 연구하는 전세계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섬기며 차세대 선교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GMS 미국 서부지부 지부장으로 세계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다.

기사제공: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ADU 전문****리모델링!**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실내구조  
변경****집수리  
일체****“25년 건축의 딛이고 지금 상담해 보세요”****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진유철 칼럼

## 하나 된 믿음의 온 세대를 위해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라가 되고 있습니다. 현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확고한 이슬람교 신자로 이미 런던은 1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또 지금 영국의 수상 '리시 수너'는 인도계 힌두교인입니다. 이전 국회 의원 선서를 할 때도 성경이 아닌 힌두교의 경전에 손을 얹고 맹세했고, 언제나 힌두교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군종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 최근 한국을 가서 보고 충격 속에 쓰신 글을 보니까 당시 장병들이 300여 명씩 모이던 군인 교회에 15명 내외의 장병밖에는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는 복음화율이 3% 인데, 한국 대학생 신자율이 4% 이하가 되어서 대학가의 선교단체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구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들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무수한 작은 교회들

이 문을 닫았고, 30대의 젊은 개척교회 목사方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한 때 교회부흥을 간증하던 한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음이 놀립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이민자들이 섞여 살고, 빨리 왕래하며 정보와 지식이 더하여지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 날로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터넷, 유튜브, 드라마, 영화, 맛집, 핫 플레이스 투어나 명소여행 등으로 화려하고 요란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편하게 즐기려는 자기 이기주의의 동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첫 사랑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을 이어가야 인생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EM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온 세대가 함께 서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 세대와 영적으로 결이 같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벧전 5:8-10)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잠깐의 불편함과 고난을 견디며 함께 예배드리고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므로 세상의 대적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롬!

## 강준민 칼럼

## 깊은 상처, 더 깊은 능력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다. 그렇기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처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배신, 상처, 상실,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다. 학대와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의 상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상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능한 상처를 덜 받고 덜 주며 목회하려고 애쓰지만,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듯 기도의 자리에서 제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상처의 신비는,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생애를 가능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처를 바르게 치유하고 다루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깊은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상처의 경험은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줍니다. 상처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을 더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깊은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깊은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을 안고 살았으나, 그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죽도록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

상처는 열림입니다. 열린 상처 위에 하나님

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의 빛이 임합니다. 마음과 낙하산은 열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면 안 됩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닫으면, 좋은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닫힌 그릇에는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는 또한 깨어짐입니다. 곡식이 으깨져 고운 가루가 될 때 소재가 드려지고, 장미가 새벽 이슬 속에서 으깨질 때 가장 귀한 향유가 만들어집니다. 상처가 가꾸어지면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자가 아니라, 상처로 부드러워진 사람, 깨어진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상처 입은 자들이었고,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를 잘 가꾸면 상처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상처는 공감과 연민을 키우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상처는 믿음을 키우며 영성을 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상처를 깊은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상처를 인식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환대할 때 상처는 더 이상 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둘째, 상처를 통해 배우십시오. 벤저민 프랭클린은 "고통은 교훈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안락함보다 시련을 통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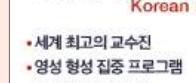
셋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아픔을 깊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민 목회의 실태를 통해, 실패의 고통 속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전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미움과 복수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소생시키는 산소입니다.

다섯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보다 질깁니다. 인생은 상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길을 열어 줍니다.

상처를 무조건 미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김정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상처 아닌 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상처와 함께 피어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과 생수로 우리는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가장 깊은 능력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설립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퍸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성담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TRACS 정회원 인증

전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신학, 성담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관지향적 교육을 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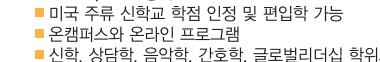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회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성담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신학, 성담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종교학 학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info@evangelia.edu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국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amp;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lo@gmail.com

전화 | 1508-826-5145

##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한국학부원

한국학부원

한국학부원

한국학부원

한국학부원

한국학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믄!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http://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LOVING  
주관 FORSHIP



## ■ 오요한 목사 강해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63장 강해

요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7절)”

이스라엘의 죄악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은총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 중에 하나님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 1.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1-6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이 오십니다. 이사야는 예돔에서 오시고 예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묻습니다. 예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여호와는 예돔에서 오는 그분은 바로 ‘나’라고 대답하십니다. 여호와는 피가 묻은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걸어오십니다. 여호와는 회개치 않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걸어오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옷이 왜 붉으며,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이 붉으냐고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대답합니다. 그분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것 같이 붉은 이유는 하나님과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돔의 무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노함으로 이스라엘 대적의 무리를 밟으셨는데, 그들의 선혈이 여호와의 옷에 뛰어

의복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때가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누구도 하나님을 돋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중보자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악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을 정도로 인간이 죄악되고 연약한가,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의지해, 하나님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공의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십니다. 하나님과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선혈을 땅에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 2.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7-10절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현재 어려운 형편에서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합니다. 그의 사랑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

푸신 은총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말을 받아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셔서 그들을 양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자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이스라엘의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옛적 모든 날에 이스라엘을 아기와 같이 팔로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안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몰례를 섬겼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더욱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거역한 자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이

스라엘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 3.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11-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때를 그리워하며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과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흥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만드시고 그들을 흥해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괘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려고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의 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깊은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괘야에 다니는 말과 같이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예전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괘야를 지날 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이스라엘을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골짜기를 다 내려가면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목자로 따라갑니다. 오요한 목사·천안 UBF(말씀 사랑교회) <다음호에 계속>

## ■ 김영한 칼럼

## WEA는 어떤 단체이며 신학은 무엇인가(II)

[이전호에 이어서] 오시는 해외지도자들은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체험하고자 오시는 데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이들과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세계선교를 향한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한국교회가 2025 WEA서울총회를 환영하고 대회가 성공하여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후기기독교시대에 처해있는 오늘날 세계선교와 복음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필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WEA에 관하여 보다 바른 이해를 갖도록 보다 신학적 배경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러차례 WEA에 관하여 글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 II. WEA는 세계복음주의자들의 연맹이며 가장 역사가 깊은 세계복음주의자들의 단체다.

WEA는 19세기 당시 시대적으로 창궐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에서 제시된 진화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정치적 경제학 비판』(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867)으로 인한 공산주의, 독일로부터 밀려온 역사적 비판학(고등비평, higher criticism) 등 자유주의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전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연대를 결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으로 시작하였다.

WEA는 1846년의 창립부터 지난 179년 동안 단 한 번도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을 표방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WEA는 공식 문서에 에큐메니칼(Ecumenical/교회일치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신앙고백을 전제하는 복음의 연맹체로 충실히 왔다. WEA는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 권위를 고백하는 개혁주의 교단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세계개혁주의협의회(World Reformed Fellowship)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며, 합동교단

은 WRF의 회원 교단”이며 예장합동교단도 WEA와 한 우산 아래 있다.

WEA는 세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종신대, 장신대, 고신대, 합신대, 백석대, 대신대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할 수 있다.

참다운 복음주의자들은 누구를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며, 혹시 잘못된 자들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해주고 공통점을 찾아 화합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자들이다. 더군다나 본인들이 신사도 아니라고 표명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문점이 생기면 문제를 제기하고 바른길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여기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까지 포함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직장에서 지대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신앙고백적으로 우리와 다른 신자들에 대하여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말고 저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성경이 전해주는 사도적 올바른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내와 관용을 갖고 교통해야 한다. 그 원칙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회에 오시는 WEA지도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요, 사도신경(Symbolum Apostolicum, The Apostolic Creed)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Symbolum Nicæno-Constatinopolitanum, The Nicene-Constatinopolitan Creed)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작년 제4회 로잔인천대회처럼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된 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계속>

##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http://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울린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육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http://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다충·심충 분석

## 십자가 고난 축소·피상적 이해 현대 경향에 강력히 도전하다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

클라스 스킬더 | 순성은 역 |  
크리스천트리네상스 | 647쪽 |  
34,000원클라스 스킬더의 사순절  
삼부작 설교는 “그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작품(서문 중)”으로  
소개된다이 설교집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을 다루고  
있고, 스킬더가  
‘구속사적 설교’의  
화두를 던진 신학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평가는  
적확할 듯하다

20세기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인 클라스 스킬더(Klass Schilder, 1890~1952)의 깊이 있는 묵상을 담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양한 신학적·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 서론: 십자가의 신비와 현대적 의미

클라스 스킬더의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 그 고난의 심오한 신학적 의미와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역작입니다.

스킬더는 특유의 통찰력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철학적·신학적 전통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십자가 사건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 책은 고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려는 현대적 경향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 고난의 필연성과 하나님의 주권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연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필연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예수 자신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일관되게 제시되었음을 지적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난을 무의미한 고통으로 치부하거나 인간의 자유 의지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넘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 죄의 심각성과 대속의 은혜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 죄의 심각

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근본적 악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죄 문제 해결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가 대속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 고난의 다양한 측면과 신학적 해석

스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뇌, 하나님으로부터의 벼랑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배신과 부인,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등 성경 기록을 섭세하게 따라가며, 예수께서 겪으신 내면의 갈등과 고통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의 다양한 측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간의 죄와 구원이라는 신학적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희생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돋습니다.

특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이 절규에 대한 스킬더의 해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활의 빛으로 조명되는 고난

스킬더는 십자가 고난이 부활이라는 궁극적 승리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혀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빛 아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사건으로 그 의미가 변화됩니다.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사건으로 그 의미가 변화됩니다.



2025 부활절 퍼레이드 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  
©CTS

다. 스킬더는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킬더는 십자가가 개인 구원을 넘어 사회의 불의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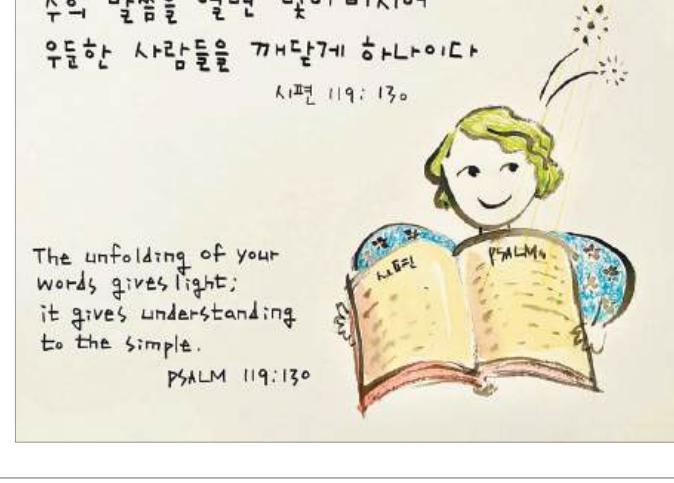
### 결론: 십자가의 묵상과 삶의 변화

클라스 스킬더의 <수난당하시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이끄는 탁월한 신학 서적입니다. 스킬더의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은 독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도전합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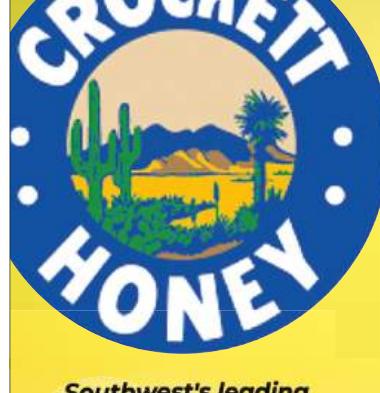


#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빛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Honey 3lbs

\$25+tax



###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Bee Pollen

\$45+tax



###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금,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Royal Jelly

\$25+tax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실물로 놓은 초석

##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된 ‘기독교 미술’ 발전

성공회서울주교좌 예수모자이크  
상단 그리스도상, 하단 성인상  
명동성당 제대 위 14성인 종도상  
1920년대 한국 기독교 문화 상징

‘교회 미술’은 한때 기독교 예술을 주도했던 종주적 부분이었다. 이 속에는 기독교 신앙 및 서사와 관련된 주제를 표현한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벽화, 텁파눔 장식과 조각 등 여러 미술 장르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에서 상당한 규모의 교회 미술이 제작됐는데,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의 ‘예수 모자이크’와 명동성당의 ‘14 종도상(宗徒像)’이 그러하다. 먼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의 모자이크 작품부터 살펴 보자. 대한성공회의 트롤로프 주교(Mark Napier Trollope, 1862-1930)는 서울 중구 정동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 건립을 추진했다.

설계를 맡은 아더 딕슨(Arthur Dixon)은 러스킨과 모리스의 영향을 받은 영국 미술공예 운동(Art and Craft Movement)에 참여했던 건축가였으며, 조지 잭(George W. Henry Jack, 1855-1931)에게 모자이크 설계를 맡겼다.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예술과 공예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웹의 사무실에 들어가 미술을 배웠고, 이후 모자이

크, 가구 디자인, 스테인드글라스를 포함한 목각 및 기타 공예기술을 개발했으며, 후에는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미술을 가르쳤다. 조지 잭은 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내 성 앤드루 예배당 모자이크를 설계한 적이 있어, 대한성공회 성당의 모자이크 제작에 선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성 앤드류 예배당에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던 미술 공예가 조시(Josey)의 도움을 받아 작품제작을 진행했다.

서울 대성당 모자이크는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는데 상단에는 그리스도상이, 하단에는 성인상이 형상화돼 있다. 상단의 그리스도상은 1927년에, 하단의 성인상은 1938년에 각각 완성됐다.

상단의 그리스도상을 보면 왼손에 라틴어로 ‘Ego Sum Lux Mundi(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적힌 책을 펼쳐들고 있는데, 오른손 두 손가락을 모은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뜻을 지닌다. 배경에 쓰인 크리스토크라임 JC/XC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약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지 잭의 원래 설계안에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상징인 카이로(Chi-Rho) ☧ (그리스어 그리스도 χροστός)의 앞 두 글자에서 유래)가 화면 좌측에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화면 우측에 있었으나 완성작에서는 JC/XC로 변경됐다.

아무래도 우리의 눈길을 모으는 부분은 반

구형 돔에 설치된 예수 그리스도상이다. 흔히 책을 들고 있는 예수상을 ‘판토크라토르(Pantocrator)’라고 부르는데,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판토크라토르’ 중에서 오래된 작품은 6-7세기 제작된 캐서린 수도원에서 보존되어 있는 작품으로 지금과 같은 상반신으로 돼 있다. ‘판토크라토르’ 양식은 비교적 단순한 포즈로 돼 있는데, 오른손은 위로 들어올리고 왼손은 평거나 접힌 성경을 잡고 있는 식이다. 조지 잭의 작품처럼 복음을 펼치는 도상을 ‘선생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복음서 안쪽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

이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주 하나님 이 말씀하신다’,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 등 여러 내용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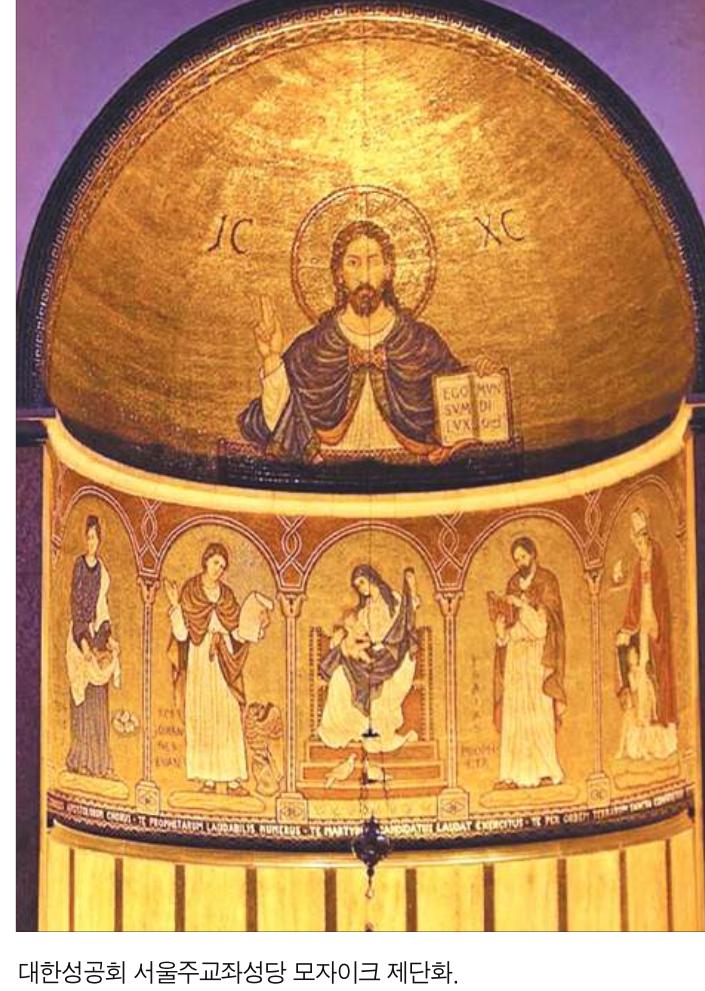
모자이크 하단 벽면에는 5개의 아치 공간에 인물상이 등장한다. 좌로부터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아이들에 둘러싸인 성 니콜라스(서울 대성당 수호성인)를 각각 볼 수 있다. 그림 밑에 기록된 라틴어 찬송 ‘테 데움(Te Deum)’에는 “영화를 입은 모든 사도들이 주를 찬송하오며 주를 위해 증거하고 순교당한 자들 모

두 주를 찬송하오며, 온 천사의 모든 교회가 주를 찬송하도다(김정신, 성공회 서울 대성당의 건축양식과 그리스도교 빛의 미학, 『미학예술학연구』, 2004, 8쪽)”고 기록돼 있다. 모자이크 작품을 통해 조지 잭과 조시의 교회미술의 오랜 도상 전통을 지닌 ‘판토크라토르’ 도상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명동성당 제대 위에는 『14 종도상』이 소장돼 있다. 가톨릭 신자 장발(1901-2001)이 드브레 유 주교(1877-1926)의 의뢰로 제작한 것이다. 일찍이 장발은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도미,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학, 미술사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에는 가톨릭 미술을 국내에 확산,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이때 그린 그림으로 ‘김대건 신부상’, ‘김골룸바와 아네스 자매’ 등이 있다. 미술사학자 이구열의 표현대로 그는 ‘본격적 성화 제작을 개척한 화가’였다.

『14 종도상』은 그가 1925년 바티칸에서 조선 순교자 시복식에 참여해 돌아와 명동성당 제단 뒷면 설치용으로 약 2년에 걸쳐 제작한 것이다. 모두 1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점 한 점이 아치형이며 라틴어와 한글로 주인공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등장인물은 맷디아, 시몬, 바돌로메, 소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바울, 대 야고보, 빌립, 마태, 다대오, 바나바 등이 주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동료 미술가 이순석(1905-1986)에 의하면 장발은 이 공간을 어떻게 장식할지 고민을 하다가,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을 방문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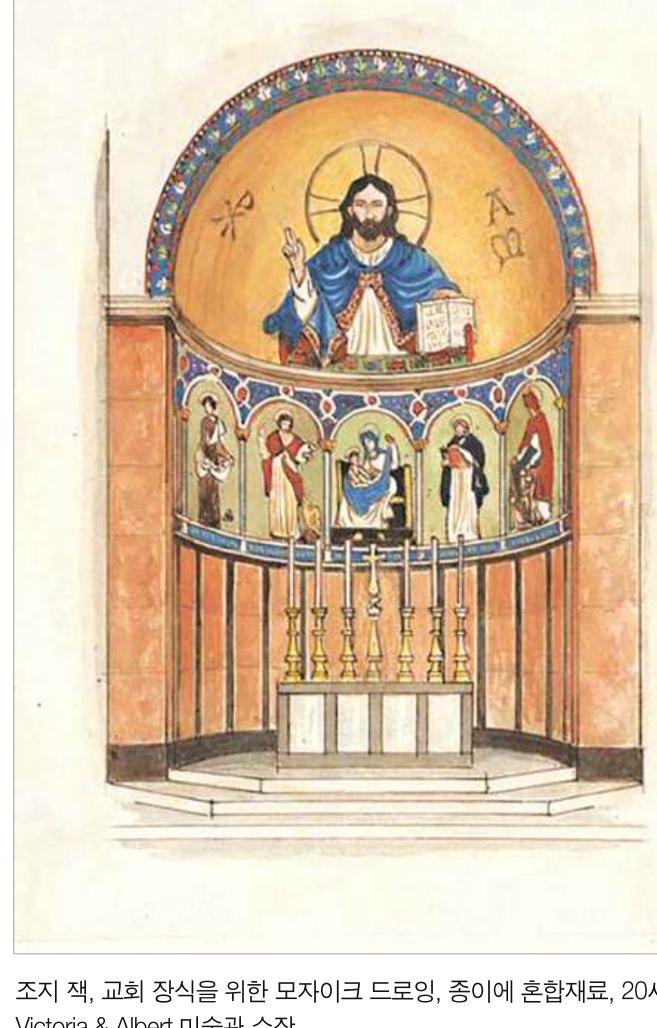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한다. 그곳에서 석굴암 내벽의 원형 구조와 석가모니 본존불을 중심으로 그것을 둘러싸는 10대 제자상 입상 부조배열을 참조하여 제단화를 계획했다고 한다. 제단화의 등장인물이 그리스도를 예워싼 듯한 구도로 돼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교회 미술을 공부할 때 참고하였던 보이론(Beuron) 화풍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 베데딕트회 소속 신부 화가들이 세운 보이론 미술은 ‘침묵하고 고요하며 신비롭게 보이는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데, 『14 종도상』 역시 그런 방침에 따라 등장인물의 동작을 줄여 경건함을 더하고자 했다. 장발 역시 “부동의 세를 취함으로 일층 엄숙한 느낌을 더한다(장발, 보이론 예술, 『카톨릭 청년』 2권 2호, 1934, 52-53쪽)”면서 경건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192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유입된 기독교 미술은 출판물에 실린 삽화나 교재용 인쇄물이 주종을 이루던 시기이다. 이때 조지 잭의 모자이크나 장발의 『14 종도상』 제단화는 출판물에 머물렀던 기독교 미술을 실물로 제작해 교회 미술의 초석을 놓게 되었다.

조지 잭의 그리스도상과 장발의 『14 종도상』과 같은 교회 미술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추구하던 시각예술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지만, 1920년대 한국 기독교 문화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만하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조지 잭, 교회 장식을 위한 모자이크 드로잉, 종이에 혼합재료, 20세기 초, Victoria & Albert 미술관 소장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토크 셰프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 ΙΧΘΥΣ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ΙΧΘΥΣ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Loving Worship**

**Praise Team**

**Tickets**

\$10 | 213.357.1565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Saturday [ 토 ]**  
10.04.2025 — 6:30PM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Sunday [ 주일 ]**  
10.05.2025 — 7:30PM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Friday [ 금 ]**  
10.10.2025 — 7:30PM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

LOVING  
WORSHIP

